

혈액 투석 환자에게서 후천성신낭종의 자발성 파열로 발견된 양측성 신세포암 1례

단국대병원 내과¹, 단국대병원 비뇨기과²

이도현¹, 홍성우², 조종태¹, 윤성철¹, 이은경¹

Spontaneous Rupture of Bilateral Renal Cell Carcinomas in Hemodialysis Patient

Do Hyun Lee¹, Sung Woo Hong², Jong Tae Cho¹, Seong Cheol Yun¹, Eun Kyoung Lee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Department of Urology², Dankook University Hospital

신세포암은 투석 환자에게서, 특히 후천성 신낭종에 병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드물게 신세포암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출혈성 속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저자들은 후천성 신낭종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출혈성 속으로 양측성 신세포암이 발견된 34세 혈액 투석 환자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7년 전 만성사구체 신염에 의한 말기신질환으로 본원에서 복막 투석을 시작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년 반 후 복막투석 효율의 부족으로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여 개인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었다. 입원 당일 오전 혈액 투석 후 오후 4시경 갑자기 우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져 지역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혈압은 90/60 mmHg 이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측 신장 주위 혈종이 발견되었고 혈색소는 9.1 g/dL 이었다. 혈관조영술 및 수술 등의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신장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측 신장의 다발성 낭종, 우측 신동맥 분지에서 조영제 유출이 확인되었으며 우측 신장 주위 혈종 및 좌측 신장의 13×12×8 cm의 고형성 종괴 발견되었다. 우측 신장의 동맥조영을 시행하여 조영제 유출을 확인하고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약 24시간 동안 10 units의 백혈구 제거 적혈구 농축액이 수혈되었고 혈압 및 혈색소의 감소는 더 이상 없었다. 10일 후 좌측 신장의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조직 검사에서 투명세포암종으로 확인되었고 수술 절제 부위 암세포 침윤은 없었다. 34일 후 우측 신장의 신절제술 및 혈종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이어 나온 신조직검사 결과에서 신세포암이 확인되었다. PETCT를 수술 후 시행하였으며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Key Words: 신세포암, 양측성, 혈액투석

Renal cell carcinoma, Bilateral, Hemodialysis